

## 의과대학생 국가고시 거부와 동맹휴학에 대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입장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의료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의과대학생들의 동맹휴학과 의사국가시험 거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벌을 강조하면서 동맹휴학과 시험 거부 의사가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막지 못한 스승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은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정부와 의사협회에 말씀드립니다. 공공의료발전계획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하려고하는 현재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이 거의 없고, 새로운 문제만을 양산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의사협회는 한 자리에 모여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스승과 선배들의 짐을 지고 가는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시험거부와 동맹휴학을 집단이기주의라 비난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제자들의 순수한 열정을 믿고 지지합니다. 정당한 주장을 하는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명입니다. 혹 시라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스승인 우리 교수들이 나설 것입니다.

3.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말씀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더욱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고, 전공의와 전임의 파업으로 인한 교수들의 과도한 업무 증가로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적절하게 치르기 어렵습니다. 이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의 연기를 제안합니다.

불과 한 달 전만해도 국민, 의료계, 정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 곁으로, 의사는 환자 곁으로, 학생들은 학교와 스승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일동